

# 영암군, 고졸 검정고시 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시험장 이동차량 지원·점심 도시락 제공 등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속 지원

영암군이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응원에 나섰다.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0일 실시된 2021년 제1차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시험장 이동 차량 지원 및 방역용품과 점심 도시락을 제공했다.

지난 2020년 치러진 검정고시 시험에서는 12명이 응시해 9명이 합격하고 1명이 대학에 입학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검정고시 교재,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강의 등을 지원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해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이 시험공부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상태 점검 모니터링, 간편식 급식, 검정고시 교재 지원 및 대면·비대면(온라인) 교과(영어, 수학, 과학)수업, 문화체험,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만9세부터 24세까지 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개인 사정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신청은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학교밖지원센터(061-470-6791~2)로 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10일 실시된 2021년 제1차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시험장 이동 차량 지원 및 방역용품과 점심 도시락을 제공했다. /영암군 제공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이용 여행사 인센티브

무안군은 지난 8일부터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해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과 항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했으며, 무안국제공항 이용을 주요 조건으로 전세기(항공기) 운항장려금은 왕복 1회당 국내선 300만원, 국제선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단체관광객 차량지원금은 같은 항공기를 탑승한 10인 이상의 단체일 경우 왕복 1회당 20만원을 지원하며 국내 단체관광객 모객 인센티브는 10인 이상의 단체 또는 5팀 이상이 같은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한 경우 1인당 5천원을 지급한다.

한편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무안-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해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항 예정이며, 공모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고민재 기자

## 목포시, 문화재를 누비는 근대거리여행 시작

### 10일부터 매일 상설로 운영...생생문화재 사업 5년차

목포시는 지난 10일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2021년 생생문화재 사업 ‘목포명물 옥단이! 잔칫집으로 마실가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극단 갯돌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후 2시에 목포진 역사공원에서 출발해 근대역사관 2관과 목포평화의 소녀상을 거쳐 근대역사관 1관에서 마무리되는 이동형 거리극으로 옥단이가 들려주는 문화재 해설과 독립선언서 만들기 등 각종 체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문화 콘텐츠로 창출해 문화재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매년 공모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올해 ‘목포 명물 옥단이! 잔칫집으로 마실가다!’와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2개의 사업이 선정돼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둘째·넷째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대표적 문화재 관광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은 근대인물이 등장해 해설해주는 문화재 투어와 개항장 거리 재현 및 공연으로 구성해 오는 24일부터 운영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참가 신청(무료)은 극단갯돌(061-243-9786)이나 목포시 도시문화재과(061-270-8321)로 하면 된다.

/박성태 기자

## 신안군, 새우종자 대량 생산 체계 구축

### 새우양식산업 기반 강화-종자 수급 안정화 기여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증도 화도에 대규모 새우종자 배양장이 건립돼 이달 중순부터 점차적으로 새우양식어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건립된 새우 종자배양장은 증도면 화도 소재 김찬균씨가 총 사업비 32억원(국·군비 10억, 자부담 22억) 투입해, 4천775㎡규모로

조성했으며, 지난 2월중순 하와이산 새우 모하 2천여 마리를 들여와 배양중으로 금년에 2~3억마리의 새우종자 생산을 예상하고 있다.

신안군은 금년 새우 종자배양장 건립을 통해 관내 새우종자 소비량 5억마리 중 약 2억 5천마리(50%) 가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고, 그로 인한 운송비 절감, 초기 폐사를 저감, 출하시기 조절 등으로 지금까지 신안군이 안고 있었던 새우종자 입식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안군은 양식새우의 주산지인 전국 양식새우 생산량의 52%(전남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272어가(894ha)에서 4천 200여톤 생산, 왕새우양식 사상 첫 600억원을 달성했다. /장흥근 기자

## 강진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가입비 80% 보조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

강진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침수 피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올해 67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을 지역농협을 통해 접수한다. 특히 가입비의 80%(국비 50%, 도비 10%, 군비 20%)를 보조 지원해 농업인은 20%만 부담하면 되며, 일부 농협에서는 농업인 부담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보험 가입 시기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등),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2월24일~11월26일, ▲고추 4월~5월, ▲고구마, 옥수수 4월~6월, ▲벼 5월~6월, ▲인삼 4월5일~5월28일이다.

지난해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5천 512명, 재배면적은 8천429ha에 이른다. /윤규진 기자

## 함평, 취약계층 장기입원자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지원

함평군이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안방 및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1:1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총 90명의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자가 퇴원 후 낙상사고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급여 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현 주민복지과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불편을 사전에 파악해 지원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장기입원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군  
YEONGAM-GUN

기억의 고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 평범한 일상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 왕인문화축제 / 월출산 기차랜드 / 구림전통마을

월출산 국화축제 / 마한축제 / 기차밧길 / 한국트롯트가요센터